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특징과 그들의 후원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강 철 희*

본 연구는 민간 복지 자원의 중요한 한 축으로 기능하는 일반 시민들의 후원 활동과 관련하여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과 후원 행동 및 그들의 후원 노력(philanthropic effort)의 수준을 파악하고 기술하는 것 그리고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각기 다른 수준의 후원 노력(philanthropic effort)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에 연구의 기본 관심을 둔다. 본 연구는 후원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안정된 직업을 갖는 사람들,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 기독교를 종교로 갖는 사람들, 기혼자들의 비중이 큼을 보여준다. 후원 활동의 동기에서는 "joy of giving"과 같은 내적 동기를 갖는 사람들의 비중이 큼을 보여준다. 그리고 후원금 활용 신뢰도 및 후원 기관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후원 활동에의 참여의 적극성 모두에서 대다수가 상당히 긍정적인 이해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후원 지속 기간에서는 3년과 4년을 중심으로 정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이, 그리고 후원금 규모에서도 월 2만원을 중심으로 정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이 관찰된다.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개인 후원 노력 비율은 1.2%를 중심으로 정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이러한 후원 노력은 소득에 의해 가장 많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형태가 미국에서의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U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후원 노력이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와 논의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초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 서론

우리 나라 사회복지 조직들의 재정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낮아지는 반면, 일반 시민 및 기업들을 포함하는 민간 복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제 위기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복지 조직들의 재정적 곤란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 복지 자원 확대의 필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민간 복지 자원 시장은 실질적으로도 그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지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증가와는 달리 민간 복지 자원의 활용 정도와 방법 및 규모에 대한 연구는 거의 부재하고 또한 연구 대상 조직들의 개방성 부족으로 인하여 이러한 측면에 대해 실증적으로 조사되어 알려진 것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 복지 자원 현황 파악과 개발을 위한 기초적 연구들이 다양한 관련 주제들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보다 세밀하고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배경으로, 민간 복지 자원의 중요한 한 축으로 기능하는 일반 시민들의 사회복지 조직들에 대한 후원 활동에 대해 기본적인 관심을 갖는다. 이 주제와 관련해 본 연구는 먼저 사회복지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과 후원 행동 그리고 그들의 후원 노력(philanthropic effort)의 정도 파악, 즉 누가, 왜, 어느 정도의 노력을 나타내면서 후원활동에 참여하는가를 탐색하고 기술하는데 연구의 기본적인 관심을 둔다. 그리고 이러한 탐색과 기술을 기반으로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각기 다른 수준의 후원 노력(philanthropic effort)을 설명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연구의 실질적 관심을 둔다. 즉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후원 노력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들을 파악하면서 이와 관련된 함축적 의미를 정리하는 것에 본 연구는 보다 많은 관심을 둔다.

본 연구는 1998년 3월 한국 선명회, 한국 복지 재단, 심장 재단, 은평 천사원, 홀트 아동 복지 회의 후원자들중 무작위적인 방법을 통해 추출된 사람들 중에서 본 연구자가 보낸 설문에 응답한 191명의 후원자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통해 위에서 언급된 연구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복지 조직을 위해 현재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수집된 본 자료는 그들의 일반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그들이 나타내는 후원 행동들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일반화시키는데 그리고 그들의 후원 노력의 정도와 요인들을 밝히는데 유용성이 높은 자료라고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가 갖는 가장 큰 의의는 사회복지 조직들에 대해 후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 특징과 행동 및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한 번도 연구되어지지 않은 주제인 후원 노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이에 대해서 보다 실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이다. 즉 후원금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길 수 있는 것이 후원 지속 기간과 후원 노력의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런 주제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후원 노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후원 노력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들의 중요한 기초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선행 연구

1. 후원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과연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후원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 조사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소득

소득과 후원 활동의 관계에 대해서 경제적 여유, 즉 고소득에 따른 후원 활동에의 참가를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국세청의 자료를 기초로 세제 혜택을 위해 세금을 항목별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tax itemizers), 즉 일반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갖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그들 중의 97%가 자선 활동을 위한 기부금을 내고 있다고 Clotfelter(1985)는 보고한다. 즉 경제적 안정과 자선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위의 조사는 나타낸다. 그러나 후원과 후원 활동과의 관계는 후원 문화와 세금 관련 제도들의 배경적 차이가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서 나라마다 상당히 다른 모습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소득과 후원 활동 참여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없고 단지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여 소득과 후원 활동 참여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조사 결과들은 다소 있어 이를 기초로 소득과 후원 활동의 관계의 일면을 이해해 볼 수 있다. 후원 지속에 관하여 연구한 조소라(1995)의 논문은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정 소득은 100에서 150만원 미만 사이가 35.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50에서 200만원 미만 사이 (21.2%), 그 다음이 100만원 미만(20.2%), 그 다음이 200에서 300만원 미만(17.1%)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통해 후원 활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은 중하소득층과 중소득층 중심임을 보여준다. 사회복지 기관의 후원자 관리에 관하여 연구한 박정미(1995)의 논문은 후원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200만원 이상이 30.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0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29.3%), 그 다음이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19.8%), 그 다음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 (14.7%)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소득층까지 골고루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복지 재단을 통해 후원활동을 하고 있는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 복지 재단(1997)의 연구 결과도 후원자들의 대부분이 본인들의 경제적인 수준을 중소득층 (50%), 그 다음이 중하소득층 (26.3%), 그 다음이 중상소득층 (16.3%) 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데 이 결과 또한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조직을 위해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이 중소득층 중심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2) 연령

후원 활동에의 참여를 설명하는 중요 인구학적 변수중의 하나로 연령이 중요하게 언급된다. Feldstein과 Clotfelter (1976, 1980)의 연구들에 의하면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후원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상당히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한다. Sewell, Jr. (1988)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55세 이상의 연령층이 청년층이나 장년층과 같은 연령층과 비교할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후원 활동을 벌이고 있고 그 참가 비율도 훨씬 높다고 밝힌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Jencks(1987)는 사람들이 연령이 많아질수록 더 관대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층들이 사회 문화적 영향에 의해 현재의 장년층이나 중년층보다 그들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보다 더 관대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미국을 배경으로 한 이러한 연구 보고와 설명은 문화와 경제 및 사회적 여건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그 결과를 다른 사회에 여과없이 일반화시키는데는 다소의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령과 후원 활동과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 조사 연구는 없는 상태이고,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연령을 측정하여 소득과 후원 활동 참여와의 관계의 일면을 이해하게 하는 연구들은 다소 있다. 조소라(1995)는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연령이 20대(36%), 30대(28.4%), 40대(14.7%), 50대(10.4%) 순으로 되어 있어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의 분포를 볼 때, 청년층 및 중년층의 참여가 보다 더 높게 나타나지만 후원 지속율에서는 50대 이상의 인구 연령의 지속율이 가장 높다고 것을 보고하면서 후원 활동에서의 지속성과 연령은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연령의 증가가 후원 활동에의 참여 정도 및 범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보다는 참여하고 있는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정적 노력과 더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박정미(1995)의 연구도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이 30대(31.9%), 20대(26.3%), 40대(23.8%), 50대(7.3%) 순으로 되어 있음을 보이면서 참여자들의 연령 분포가 조소라의 조사 결과에 근접함을 보여준다. 한국 복지 재단에 후원하는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1997)의 결과도 후원자들의 연령이 40대(37%), 30대(28.6%), 50대(18%)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데 이 결과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 조직을 위해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이 30대와 40대 중심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연령과 후원 활동에의 참여와의 관계는 경제적 조건, 사회적 조건 및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그리고 제도적인 환경의 차이에 따라 그 관계가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종교

후원 활동에의 참여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중요 변수로 여겨지는 종교에 대해서 많은 조사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나타낸다. Independent Sector에 의해서 1987년에 조사된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US'의 결과는 종교를 갖고 있는 것과 후원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Funds Raising Management, 1988). 이 조사에 의하면 가구 소득의 2%이상을 후원 활동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종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종교적인 생활에 대해 강한 헌신을 보인다고 한다. 즉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은 기부, 후원 활동과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1988년의 조사와 1992년의 조사 역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후원 활동 참여가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것을 보고하면서 종교가 후원 활동 참여와 자원 봉사 활동 참여 모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예측 변수들의 하나임을 지적한다 (Nonprofit Almanac, 1992). 국내의 조사들도 후원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했을 때 종교성과 후원 활동의 참여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고한다. 박정미(1996)의 연구는 연구 대상 후원자들의 50%가 자신의 종교가 개신교라고 했고, 15.6%는 천주교, 그리고 13.9%가 불교라고 응답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후원자들의 상당수(65.6%)가 기독교인임을 나타낸다. 한편 조소라(1995)의 연구도 응답자의 47.6%가 개신교, 11%가 천주교, 그리고 15.7%가 불교라고 대답했음을 보고하는데, 이 연구도 기독교(57.6%)가 전체 후원자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한국 복지 재단의 조사 결과(1997)도 개신교가 28.9%, 천주교가 12.1%, 불교가 29.7%, 그리고 무교가 24.8%임을 보고하면서, 후원자들의 3/4이 종교를 갖고 있고 그 중에서도 기독교가 41%로 가장 많음을 나타내어 종교와 후원 활동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4) 교육 수준

후원 활동에의 참여와 관련하여 고려되는 또 하나의 중요 변수는 교육 수준이다. 미국을 배경으로 한 연구들은 교육 수준에 따른 후원 활동에의 참여 정도에 대해서 초점을 두기보다는 교육의 후원금 규모에의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이러한 연구들은 소득과 나이 등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교육 수준이 기부 금액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보고한다 (Feldstein & Clotfelter, 1976; Morgan, Dye, & Hybels, 1977). 한편 후원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교육 수준을 중심으로 교육 수준과 후원 활동 참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보고하는 국내의 연구들도 후원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음을 보여줌으로서 그 관계를 나타낸다. 조소라(1995)는 전체 후원자중 52.2%가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37.4%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

고 있다고 보고한다. 박정미(1996)의 연구도 전체 후원자들의 77.1%가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19.7%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한국 복지 재단에 의한 조사(1997)도 대졸 이상이 38.1%이고 고졸이 39.8%로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2.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후원행동관련 특성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후원 참여 및 지속 동기, 후원 지속 기간, 후원 금액, 후원금 활용에 대한 신뢰도, 후원 활동에 대한 만족도, 후원 활동과 관련된 적극성 등과 같은 후원 행동 특성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 조사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후원 활동 참여 동기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에 대해서 외국의 많은 연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요인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요인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차원의 동기는 "주는 기쁨"(joy of giving)과 같은 개인 내적 자발성, 두 번째 차원의 동기는 후원 활동에 참여함에 의해 얻게 되는 "사회적 인정"과 "세금 공제 혜택"과 같은 개인 외적 자발성, 그리고 세 번째 차원의 동기는 "후원 활동을 해야한다는 압력" 등과 같은 외부 압력 및 자극 등의 비자발성으로 구분해 볼 있다. Mount(1996)의 논의에 의하면 사람들의 후원 활동 참여를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이 "주는 기쁨"이라는 내적인 것이고 그 다음이 "사회적 인정" "세금 혜택" 등의 외적인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경제, 사회, 문화 및 제도의 차이에 의해서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사회적 인정"과 "세금공제 혜택" 등의 차원과 "외부 압력" 등의 차원이 갖는 실제성은 사회에 따라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후원 지속자와 중단자의 차이에 대해 조사한 박정미(1995)의 연구는 "진정으로 돕고자해서" 등의 참여 동기가 상당히 높고 "사회적 인정"과 "타인 기대 부응" 등과 같은 동기는 상당히 낮음을 보여 줌으로서 우리나라에서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주는 기쁨"과 같은 개인 내적인 것이 보다 비중 있는 동인임을 함의한다.

2) 후원 지속 기간

후원 지속 기간은 민간 복지 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실증적 이해를 요구하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후원 지속 기간에 대해서 박정미(1995)의 연구는 후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이 2년에서 3년 사이의 지속 기간을 갖고 있음을 보고한다. 그리고 한국 복지 재단(1997)의 조사는 후원자들의 후원 지속 기간의 분포가 1년에서 2년 미만이 15.3%, 2년에서 3년 미만이 15.1%, 3년에서 4년 미만이 13.6%, 4년에서 5년 미만이 12.2%, 5년에서 6년 미만이 10.7%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전체의 약 30% 정도가 6년 이상의 후원 지속 기간을 갖고 있음을 그리고 지속 기간의 중간값이 4년에서 5년 미만에 위치해 있음을 보여준다. 최진균의 연구(1990)도 후원자들의 후원 지속 기간의 분포가 3년 미만이 14%, 3년에서 5년 미만이 34%, 5년에서 7년 미만이 24%로 나타남을 보고하면서 지속 기간의 중간값이 3년에서 5년 미만에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위의 분석방법들보다 정교한 측정 방법인 생명표 분석을 통해서 후원 지속 기간을 측정하는 조소라(1995)의 연구는 후원자들의 70% 정도가 후원 활동을 시작한지 3년이 지나도록 후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을, 즉 후원 지속 기간의 평균과 중간값이 3년보다는 훨씬 더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중 많은 사람들은 후원 활동을 시작했을 때 그렇게 빨리 중단하지 않고 최소한 3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동안 후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3) 후원 금액

후원 금액도 민간 복지 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실증적 이해를 요구하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박정미(1995)의 연구는 후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43% 정도가 월 5천1원에서 1만원 이하의 금액을, 32%가 월 5천원 이하의 금액을, 11.6%가 월 1만1원에서 2만원 이하의 금액을 후원하고 있음을 그리고 후원 금액의 중간값은 월 1만원 이하임을 보여 준다. 최진균(1995)의 조사도 후원자들의 54% 정도, 즉 반 이상이 월 5천1원에서 1만원 이하의 금액을 후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조소라(1995)의 조사도 후원자들의 38% 정도가 월 5천1원에서 1만원 이하의 금액을 후원하고 있고, 28% 정도가 월 5천원 이하의 금액을, 그리고 약 17% 정도가 월 1만1원에서 2만원 이하의 금액을 후원하고 있음을 그리고 후원 금액의 중간값은 역시 월 1만원 이하임을 보여준다. 즉 위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들은 우리나라에서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중 많은 사람들이 월 1만원 정도의 금액을 중심으로 후원 활동에 참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4) 후원기금활용에 대한 신뢰도

국내외의 조사와 논의들은 후원 기금 활용에 대해 후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뢰도는 사람들의 후원 행동 특성의 중요 변수의 하나로서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먼저 최진균(1990)은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후원 행위의 중단과 지

속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한다. 조소라(1995)의 연구도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후원 행위의 지속 여부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박정미 (1996)의 연구도 후원금 사용에 대한 신뢰성이 후원행위의 지속 여부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 신뢰도와 관련하여 미국 Independent Sector의 조사 연구(Fund Raising Management, 1996)도 비슷한 논의를 하는데, 이 조사는 미국인들의 31%가 사회복지 조직들을 포함한 대부분 자선단체들의 후원기금 사용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미국에서 1993년에 비해 1995년에 후원 가구수가 감소한 현상은 후원금을 모금하는 조직들의 후원금 사용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 하락과 상당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국내외의 조사와 논의는 신뢰도가 후원 활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신뢰도 수준 자체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5) 후원활동 참여자들의 만족도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만족도 또한 사람들의 후원 행동 특성과 관련된 중요 변수들 중의 하나로서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민간 복지 자원의 개발과 활성화와 관련하여 매우 필요하다고 보나 이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제한적이다. 후원자들의 만족도에 대한 조소라(1995)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후원 활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의 만족도 수준은 높은 편이고 후원자들의 만족도는 초기에는 비슷하게 나타나나 시간이 감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차이는 후원 활동 지속 행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기관에 대한 만족도와 개인 욕구 만족도라는 두 차원에서 만족도의 영향력을 검증해 본 결과 기관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가 보다 더 유의미하게 후원 활동 지속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위의 연구는 보여준다.

6) 후원 활동 참여에 대한 적극성 수준 및 후원 활동 지속 이유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후원 행동 특징 변수들 중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서 후원 활동 참여에 대한 적극성 수준 및 후원 활동 지속 이유 등에 대한 이해가 후원자들의 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나 후원자들의 이러한 후원 행동 특성들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아직까지 개진되거나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도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이해 증진의 기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3. 후원 노력과 후원 노력을 예측하는 요인들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후원 노력 수준과 이에 대한 예측 요인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 조사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후원 노력

전체 소득에서 자선(philanthropy)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부분의 비율을 의미하는 자선 노력(philanthropic effort) 혹은 후원 노력 수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여러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후원 노력의 수준에 대한 연구는 국외에서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 전혀 진행되어지지 않아 알려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1987년도에 수행된 Independent Sector의 조사 결과(Fund Raising Management, 1988)는 미국 국민 중에서 자선 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조직들의 활동에 기부금을 통해 지원한 비율은 전체의 71% 정도가 되고, 가구 총 수입에서의 후원금 비율, 즉 후원 노력의 정도는 가구 소득의 약 1.9% 금액으로 연평균 \$790 정도가 된다고 보고한다. 즉 미국의 경우,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자선 노력의 수준은 가구 소득의 약 2% 내외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2) 후원 노력과 소득

후원 노력의 수준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1983년의 미국 국세청 자료에 기초하여 후원 노력의 정도를 분석한 Jencks(1987)의 연구는 항목별로 소득의 내역을 보고한 가구주들, 즉 소득이 다소 높은 사람들의 소득중의 자선의 평균 비율이 2.9%임을 보여주면서, 소득에 따라서 그 노력의 비율이 상당히 달라짐을 강조한다. 즉 25,000에서 30,000불 미만 사이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주들은 평균 2.3%를 자선 단체에 기부하고 있고, 소득이 그 보다 작은 10,000에서 15,000불 미만 사이의 소득을 갖고 있는 가구주들은 4.5%, 5,000에서 10,000불 미만 사이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주들은 6.3%를 자선 단체에 기부하고 있고, 소득이 높은 50,000에서 100,000불 미만 사이의 소득을 가진 가구주들은 2.7%, 100,000불에서 500,000불 미만 사이의 소득을 가진 가구주들은 4.1%, 그리고 500,000만불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주들은 8.9%를 자선 단체에 기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위의 조사 결과는 자선 및 후원 노력은 소득과 U 형태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Jencks(1987)는 U형태의 관계가 존재하는 이유, 즉 소득에 따라서 후원 노력의 정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이유를 "paying my dues"와 "paying my surplus"로 명명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먼저 "paying my dues"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문제라고 인식하게 되면 의무감에서 자신이 옹당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그 때 사람들은 도움을 실제로 줄 수 있는 금액(minimal respectable gift; their dues)을 기부함을 통해 자선적 노력을 수행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부되는 중소득층 미만 사람들의 자선 금액은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작을 수 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 기부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입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산층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선과 관련하여 의무감을 가지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소득에 대한 후원 액수의 비중이 그다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입에서의 비중을 의미하는 후원 노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국에서는 중산층 미만으로부터 중산층, 보다 정확하게는 중간 소득(median income)의 약 2배 정도까지에서는 소득과 후원 노력의 관계가 부적인 형태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소득에 따라 후원 노력이 증가하는 형태를 설명하는 "paying my surplus"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으로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선활동에 대한 전통적 의무감과 더불어 다양한 동기 및 세금의 인센티브와 함께 자신의 수입에서의 잉여부분을 배열하는 차원에서 자선 활동을 수행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잔여분에 대한 기부에서 경제적으로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은 사적이고 개별적인 문제에 대한 자선 활동보다는 가시성이나 사회적인 공헌도를 보다 높일 수 있는 집단이나 조직 등을 대상으로 한 자선 활동을 전개하는 경향이 높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부금의 규모는 상당히 커지게 되고 그 결과 소득에 대한 기부금의 비중은 더 높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저소득층과 중소득층과는 다르게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결과로 소득과 후원 노력의 관계는 정적인 형태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적 능력과 자선 노력의 관계에 대한 Jencks(1987)의 가설은 문화 및 사회적 환경과 세금 제도 등의 제도적 환경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를 수 있기에 제한적인 설명이 될 수도 있으나 사회와 문화적 환경을 초월한 일반 사람들의 비영리 조직에 대한 후원 노력을 설명하는데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각 사회와 문화적 조건에 대한 고려와 함께 소득과 후원 노력의 관계 내용에 대한 실증적 검증 및 설명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2) 후원 노력과 연령

소득에서 자선적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후원 노력의 정도에 대해서 연령을 중심으로 그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으나, 후원금의 절대적 규모는 여러 변수들을 통제된 상황에서도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정적으로 변화한다는 연구 결과들을 통해 후원 노력과 나이와의 관계를 유추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Feldstein과 Clotfelter (1976)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소득, 재산, 교육, 그리고 다른 인구 사회학적인 변수들을 통제할 때 가구주의 연령이 한 살씩 더 높아질 때, 기부금의 규모가 1%씩 많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1970년대 초의 미국

국세청 자료를 기초로 세금을 항목화시킨 사람들, 즉 보다 높은 수준의 수입을 갖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한 Clotfelter (1980, 1981)의 연구도 소득과 가족 구조 및 기타 세금의 규모 등을 통제한 상황에서 연령에 따라서 비영리 조직들을 위한 기부 금액의 차이가 크게 달라짐을 나타내면서 연령과 후원 노력과의 선형 관계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미국의 National Survey of Philanthropy의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Morgan, Dye, 그리고 Hybels (1977)의 연구도 소득과 교육을 통제한 상황에서 연령이 기부금의 규모에서 약 2% 가량의 증가를 나타내는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고한다. 즉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연령이 자선적 목적을 위한 기부금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갖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후원 노력과도 상당히 밀접한 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3) 후원 노력과 종교

후원 노력의 정도에 영향을 끼치는 또 하나의 변수로 사람들의 종교도 중요하게 간주되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Gallup (1978, 1981)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개신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카톨릭을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1978년에는 평균 기부금에서 87% 더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1981년에는 52% 더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National Survey of Philanthropy의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Morgan, Dye, 그리고 Hybels (1977)의 연구도 비록 기부금의 차이가 위의 Gallup 조사들에서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소득 등의 여러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개신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소 더 많이 기부하고 있음을 보고한다. 즉 위의 조사 결과들은 여러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종교가 후원 노력의 정도에 어느 정도 다르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교의 영향력은 각 사회의 종교 분포에 따라서 그리고 각 종교의 사회 자선 활동에의 강조 등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후원 노력과 가족구조

후원 노력을 설명하는 변수들 중의 하나로서 가족 구조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지면서 이에 대한 조사와 논의도 활발하다. Feldstein과 Taylor(1976) 그리고 Clotfelter와 Steuerle(1981)의 연구들은 수입과 세금 규모가 통제된 상황에서 부부로 구성된 가구들의 후원 금액이 단독 세대주로 구성된 가구들의 후원 금액보다 약 20%에서 40%정도 더 높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Clotfelter와 Steuerle(1981)는 부부로 구성된 가구들의 경우에도 같은 수입을 갖는 가구들을 고려했음에도 자녀가 있는 부부로 구성된 가구들에서 자녀가 없는 부부로 구성된 가구들보다도 약 50%정도 더 많은 후원 금액을 지출한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자녀 하나가 더 있을 때 기대되어지는 후원

금액의 증가는 약 6%정도라고 Clotfelter(1980)는 보고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들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은 제로섬(zero sum)의 원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 즉 가구의 구성원이 하나 더 있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가정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Jencks, 1987). 이러한 주장 역시 경제, 사회, 문화적, 제도적 조건과 차이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들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구조 변수와 후원 노력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해서 실증적이고 세분화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5) 후원 노력과 교육수준

후원 노력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변수로서 교육의 수준도 상당히 중요하게 간주되어 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미국을 배경으로 한 Gallup의 조사(1979, 1981)는 교육 수준이 1년 높아질 때 사람들의 후원 금액은 11% 정도씩 증가한다고 보고한다. 후원 노력에 대한 교육의 효과는 교육과 수입의 관계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같은 소득을 갖는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에도, 즉 소득을 통제했을 때에도 사람들의 후원 금액의 차이는 교육에 따라서 여전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하는 연구 결과들이 대다수로서 이러한 결과들은 후원 노력의 정도에 대한 교육 수준의 영향력을 일반화할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미국의 Federal Reserve Board 샘플 자료를 기초로 조사 분석한 Feldstein과 Clotfelter (1976)는 소득과 기타 인구 사회학적인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34% 더 기부하고 있고 교육 수준 1년이 높아질 때 사람들의 후원 금액은 5% 정도씩 증가한다고 보고한다. 미국의 National Survey of Philanthropy의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Morgan, Dye, Hybels (1977)도 소득과 나이를 통제했을 때 교육 수준의 1년 증가는 기부금을 4.4% 정도씩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줌을 통해 교육의 정도와 후원 금액 및 후원 노력은 밀접한 선형 관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교육 수준이 사람들의 사회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전개시키는데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변수의 영향력 역시 경제, 사회, 문화적, 제도적 조건과 차이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들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수준과 후원 노력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본다.

6) 후원 노력과 그 외의 변수들

후원 노력의 정도는 앞에서 언급된 변수들 이외의 다른 변수들, 예를 들면 후원 동기나 후원

활동에 대한 적극성 및 후원 대상 조직들에 대한 신뢰성 및 후원자를 위한 기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과 같은 후원 행동 변수들에 의해서도 예측되고 설명되어질 수 있다고 보나,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 이론적인 논의를 하거나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들은 없다. 그러나 후원 노력에 대해서 보다 포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인구 사회학적인 변수들과 더불어 이러한 후원 행동 변수들의 영향력이 함께 실증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본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회복지 조직들을 위한 후원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방법으로 1998년 3월에 연구자에 의해 모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위에서 언급되어진 연구내용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자료는 후원자들의 참여가 활발하다고 알려진 기관인 한국 선명회, 한국 복지 재단, 한국 심장 재단, 홀트 아동 복지회, 은평천사원에서 100명씩 무작위적인 방법으로 뽑힌 후원자 총 500명중 설문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 191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연구 자료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아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다소의 제한성을 가질 수 있으나, 무작위적인 방법을 통해 엄격하게 수집되었기에 미진한 연구주제인 후원 활동 및 후원 노력에 대해서 탐색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자료라고 생각되어 진다.

2. 연구에서 활용되어지는 변수들의 구성

먼저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목적인 누가, 왜, 어느 정도의 노력을 나타내면서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후원자들의 인구 사회학적인 변수들과 후원 활동 참여 및 지속 동기 변수들과 같은 후원 행동 관련 변수들 그리고 후원 노력에 관한 변수에 관심을 갖는다. 본 연구는 인구 사회학적인 변수로 직업, 종교, 학력, 개인 총소득, 가계 총소득, 결혼 여부, 가족수, 성별, 연령 등의 변수를 활용한다. 후원 행동 관련 변수들로 후원 활동 참여 동기, 후원 지속 동기, 후원 기간, 후원 금액, 후원금 활용에 대한 신뢰도, 기관에 대한 만족도 등이 활용된다. 후원 노력 변수는 개인 총소득에서의 후원 금액의 비율을 통해 측정한다. 개인 총소득에서의 후원 금액의 비율을 통해 후원 노력을 측정하는 것은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노력

의 상대적 수준을 보다 객관적이고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위에서 언급된 변수들은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 목적, 즉 후원 노력의 예측 요인들의 파악을 위해서도 활용되어지는데, 변수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 사회학적인 변수들 중에서 종교 변수는 개신교와 카톨릭을 포함한 기독교와 비기독교 및 무종교의 두 범주로 구성되는 dummy 변수를 통해 측정되어 진다. 결혼상태 역시 기혼의 범주와 미혼 및 이혼의 두 범주로 구성되는 dummy 변수를 통해 측정되어 진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이상과 대학교 미만의 두 범주 구성되는 dummy 변수를 통해 측정되어 진다. 직업도 공무원, 회사원, 전문직의 범주와 자영업, 주부 및 기타의 범주로 나뉘는 dummy 변수를 통해 측정되어 진다. 후원 활동 시작 동기 변수는 “타인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서”의 범주와 종교적 이유, 경제적 여유, 사회적 인정 등의 그 외 범주로 나뉘는 dummy 변수를 통해 측정되어 진다. 후원 활동 지속 변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데 보람을 느껴서”의 범주와 “사회적 기여” “사회적 인정” “경제적 여유” 등의 그 외 범주로 나뉘는 dummy 변수를 통해 측정되어 진다. 후원 활동의 적극성 변수는 다른 사람들에게 후원 활동을 하도록 권유해 본 경험의 여부로 측정되어 지고, 기관에 대한 신뢰성 변수도 “신뢰한다”의 범주와 “관심없다,” “그저 그렇다,” “신뢰하지 않는다” 등의 그 외 범주로 나뉘는 dummy 변수를 통해 측정되어 진다. 마지막으로 후원 기관에 대한 만족도 변수도 그 여부를 나타내는 dummy 변수를 통해서 측정되어 진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술적인 통계분석 방법을 통해 위에서 언급된 변수들의 일반적 특징들이 파악되어질 것이다. 후원 노력의 정도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예측력과 설명력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회귀분석의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서는 회귀분석의 정상 분포 가정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서 비선형적인 변환(nonlinear transformation)의 대안 중 종속 변수에 로그를 취하는 대안(Hamilton, 1990, 1992)을 선택하여 정적인 편포성을 나타내는 후원 노력 변수를 로그 변환시킨다. 또한 소득과 같은 변수들과 함께 빈번히 나타나는 문제인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의 문제, 즉 독립변수의 값이 변함에 따라 오차항들의 폭이 확대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종속변수의 로그 변환(Hamilton, 1990, 1992) 대안의 선택을 통해 이분산성 문제의 극복을 꾀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nonmonotonic curves들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항회귀분석(polynomial regression analysis)의 방법을 활용한다. 그리고 이 다항회귀분석에서는 다차항으로 변환된 변수와 원래의 1차항 변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 즉 그들 변수간의 선형 종속의 문제로 회귀식의 추정에서 왜곡이 발

생하는 문제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다항 변수로 이용되는 소득 변수에 대해서 표준화(standardization)를 시키는 방법(김두섭, 1993)을 활용한다.

4. 연구 질문

선행 연구들의 결과들과 앞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는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 사회학적인 특징과 후원 행동 관련 특징 및 후원 노력의 정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탐색적 질문들을 갖는다.

첫째, 사회복지 조직들을 위한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 특성, 즉 그들의 인구 사회학적인 특징은 무엇이고, 후원 행동적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이들의 후원 노력, 즉 개인의 연간 총소득중의 연간 후원 금액의 비율의 변화를 의미있는 수준에서 예측하고 설명하는 변수들은 무엇인가? 소득 등의 인구 사회학적인 변수들과 후원 동기, 지속 동기, 신뢰도, 적극성 및 만족도 등의 후원 행동 관련 변수들 중 후원 노력에 대한 예측력과 설명력이 가장 큰 변수들은 무엇인가?

IV. 자료 분석

1.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1>과 <표 1-2>와 같다. 먼저 <표 1-1>의 내용을 살펴보면, 직업에서는 회사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공무원, 전문직, 자영업, 주부의 순으로 되어 있어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고 고정적 수입을 갖는 사람들의 참여가 보다 활발함을 나타낸다. 직업에서 공무원과 회사원 및 자영업과 주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는 한국 복지 재단의 조사(1997) 결과와도 상당히 근접하다. 학력에서는 과반수 이상(58.3%)이 대학교 이상의 졸업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조소라(1995)의 조사결과에는 상당히 근접하고 박정미(1995)의 조사결과보다는 약 20%정도 낮고 한국 복지 재단의 조사(1997) 결과보다는 약 20% 높은 비율이다.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학력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실시될 필요가 있으나 본 조사의 결과는 기존의 조사결과들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표 1-1>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빈도수와 백분율

변 수		빈도수	백분율(%)
직 업	회 사 원	55	28.8
	공 무 원	34	17.8
	전 문 직	31	16.2
	자 영 업	27	14.1
	주 부	21	11
	기 타	23	12
학 력	대졸이상	109	58.3
	고 졸	63	33.7
	중졸이하	15	8
종 교	개 신 교	91	47.9
	천 주 교	21	11.1
	불 교	14	7.3
	종교없음	63	33
결혼여부	기 혼	134	70.2
	미 혼	51	26.7
	기 타	6	3.1
성 별	남 자	113	59.2
	여 자	78	40.8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적 성향의 분포를 보면 개신교가 47.9%이고 천주교가 11.1%로서 기독교인들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기독교인의 비중이 높게 나오는 결과는 조소라(1995)의 조사결과와 박정미(1995)의 조사결과에 근접한 모습이나 한국 복지 재단의 조사(1997) 결과보다는 불교인의 비중이 약 20%정도 낮게 나타난 모습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본 조사 결과는 이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서 얼마간의 차이는 나타나나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중 기독교인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고 본다. 한편 결혼 여부에서는 70.2%가 기혼자로서 현재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결혼하여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 약 3/4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래에서 분석되어질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나이와 가족 규모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후원자들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약 59%로 여성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다소 높음을 보고하는 조소라(1995)와 박정미(1995)의 조사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나 약 63%의 남성 비율을 보고하는 한국 복지 재단의 조사 결과(1997)에는 상당히 근접한 것이다.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후원자들의 성 분포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광범위한 후속연구를 통해서 정확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의 <표1-2>는 후원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 가족수, 개인연간소득, 가구연간소득에 관한 것이다.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 나이는 약 38세, 중간값은 37세이고 중간의 50%가 30세와 45세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 분포에서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에서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중년층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러한 결과는 후원자들의 나이 분포에서 30대와 40대의 높은 비중을 보고하는 박정미(1995)의 조사 결과와 한국 복지 재단(1997)의 조사 결과에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 규모의 분포를 살펴보면, 가족 수 평균은 3.9명, 중간값은 4명이고 표준 편차는 약 1.4명으로서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모습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결혼 여부 및 연령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우리나라에서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여 가정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고 있는 30대와 40대 중심일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나 앞으로 이에 대해서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1-2>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연 령	37세	38.24세	11.15세
가 족 수	4명	3.9명	1.38명
개 인 연 간 소 득	2,100만원	2,200만원	1,300만원
가 구 연 간 소 득	2,700만원	2,900만원	1,200만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개인 연간 소득의 중간값은 2,100만원이고, 후원 활동 참가자의 중간 50%는 1,500만원과 3,300만원 사이의 소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구 연간 소득의 중간값은 2,700만원이고 후원 활동 참가자 중간 50%는 2,100만원과 3,900만원 사이의 소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후원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의 분포는 중층의 소득을 중

심으로 다소 정적으로 편포되어 있다고, 즉 중층과 중하층의 비중이 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결과는 후원 활동 참가자들중 100에서 150만원 사이의 소득을 갖는 사람들의 비중이 가장 높음을 보고하는 조소라(1995)의 조사 결과와 박정미(1995)의 조사 결과와도 연관된 것이고 한국 복지 재단의 경제 수준 인식 조사 결과와도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2.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동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후원 행동 관련 특징들은 표 <2-1>과 <2-2>에서와 같이 정리된다.

<표 2-1> 후원 행동 관련 특성

변 수		빈 도 (명)	백분율 (%)
후원참여동기	타인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서	157	82.6
	종교적인 이유에서	17	8.9
	기타	16	8.5
후원지속동기	보람을 느끼지 때문에	152	79.6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서	26	13.6
	기타	13	6.8
후원금 활용에 대한 신뢰도	신뢰한다	170	89
후원기관에 대한 만족도	만족한다	161	87.5
후원활동참여에서의 적극성	주변사람들에 대한 후원 참여 권유	152	80

먼저 후원 활동 참여 동기에서는 “타인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서”라는 이유와 함께 후원 활동을 시작한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고, 그 다음이 “종교적인 이유” 그리고 그 다음이 “경제적 여유” 및 “사회적 인정” 등의 기타 이유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후원 지속 동기에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데 보람을 느껴서”라는 이유에서 지속하고 있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기여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여유” 등의 기타 이유에서 지속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작 동기와 지속 동기를 볼 때, 후원 활동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동상의 특징은 “사회적 인정”이나 “세계 혜택” 등과 같은 개인 외적인 것보다는 “주는 기쁨”과 같은 개인 내적인 것에 보다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진

다. 특히 후원 활동의 지속에 있어 "소득 공제 혜택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이 약 3/4에 이르고 있고 소득 공제에 후원 금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반이 넘고 있음 역시 현재 우리나라에서 후원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 외적 요인들보다는 개인 내적 요인들에 의해서 보다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후원금 활용에 대한 신뢰도와 후원 기관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후원금 활용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고 사람들의 후원을 연계해 주고 있는 사회복지 조직의 활동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것은 조소라(1995)의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전반적으로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보다 공공성이 높은 조직들로부터 추출되어진 후원자들이 나타내는 특징일 수도 있고, 후원 활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지니는 기본적 특징일 수도 있고, 혹은 이 둘 모두의 조합에 의해서 발생된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여튼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보다 정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후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적극성, 즉 후원 참여 권유의 경험을 보면 이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 역시 후원자들을 연계하는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에 의한 것인지,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의 특징에 의한 것인지, 혹은 둘의 조합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후속 연구들을 통해 보다 상세히 설명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표 2-2> 후원 활동 지속 기간과 후원금액의 규모

	중 간 값	평 균	표 준 편 차
후원지속기간	39개월	55.34개월	44개월
연간후원금개인총액	24만원	49만원	128만원
연간후원금가구총액	24만원	70만원	163만원

마지막으로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후원 지속 기간과 후원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지속 기간에서는 앞에서의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 중간값이 3년이 넘고 그리고 평균은 4년을 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중 많은 사람들은 일단 후원 활동을 시작하면 상당 기간동안 후원 활동을 지속하는 경향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후원 금액의 규모에 있어서는 본 연구의 결과는 월 1만원 정도의 금액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과는 다소 다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즉 후원 규모에 있어서 본 연구는 그 중

간값이 연 24만원으로 월 2만원을 중심으로 후원금이 분포되어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차이는 조사 방법의 차이, 즉 다른 조사들에서는 어느 한 사회복지 조직에 한정하여 월별 후원금을 측정하였고 본 조사에서는 대상 조직에 상관없이 연간 후원금 총액을 측정하였기에 발생되었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조사 연도의 차이 등과 같은 다른 이유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보다 더 정교하고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후원 노력과 후원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하는 후원 노력의 정도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 연간 후원금 총액을 개인 연간 소득 총액으로 나누어서 얻어지는 후원 노력의 분포를 보면, 그 중간값이 1.2%, 평균은 2.4%, 그리고 1st quarter의 값이 0.66%, 3rd quarter 값이 2.22%로서 중간 50%는 1.2%를 중심으로 0.66%와 2.22% 사이에 위치해 있으나 outlier들에 의해서 평균은 다소 높게 측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이러한 정도의 개인 후원 노력은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1987년 미국 Independent Sector의 조사 결과(Fund Raising Management, 1988)의 값(평균 1.9%)과 미국 국세청의 자료에 기준하여 Jencks (1987)가 산정한 값(2.9%)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본 자료는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타내는 개인 후원 노력의 평균 비율이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의 가구별 후원 노력의 평균 비율에 근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자료의 규모와 샘플의 내용, 측정 방법의 차이 및 후원 활동 내용에서의 차이로 인해 오차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앞으로 후원 노력의 규모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어 실제적인 비교가 가능해 질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후원 노력을 종속변수로 두고 소득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을 실행한 결과를 보면, <표 3-1>에서와 같이 소득과 후원 노력은 비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관계가 다항 회귀 모형을 통해 보다 정확히 설명되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소득 모형은 후원 노력의 방향 변화를 예측케 하는 후원 노력 최소점에서의 예측 소득이 개인 연간 소득 기준으로 28,457,598원이고 이 소득에서 예측되어지는 후원 노력은 0.555%로서 이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가질수록 후원 노력이 점차 증가되는 것이 예측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소득 모형은 미국에서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소득과 후원 노력의 관계가 U의 형태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관계의 내용 및 발생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조사와 고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U 형태의 발생에 대해서 대부분이 일정한 금액을 중심으로 후원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소득에 따라 후원 노력이 감소하는 부분까지

는 "paying my dues"의 내용으로서 그 변화를 설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으나, 소득에 따라 후원 노력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리고 어느 지점까지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리된 소득 모델의 조정된 결정 계수 (Adjusted R²) 즉 모델의 설명력은 10.5%이고 이러한 설명력의 유의미성도 상당히 높음을 위의 소득 모델은 나타내고 있다.

<표 3-1>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소득관련 변수 모델

예 측 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 model			소득 변수 model		
	B	β	SE	B	β	SE
표준화된 개인소득	-.572	-.535	.122***	-.392	-.370	.097***
표준화된 개인소득 ²	.311	.375	.080***	.325	.391	.076***
성 별	-2.3E-02	-.010	.187			
종 교	.303	.137	.165			
결혼상태	-8.5E-02	-.035	.234			
교육수준	.252	.113	.177			
연 령	3.262E-02	.323	.010**			
직 업	-.343	-.148	.174*			
가 족 수	3.368E-02	.043	.057			
(Constant)	-1.502		.451**	-.107		.109
Adjusted R ²	.219			.105		
F	5.994***			10.888***		

종속변수 : log 후원 노력

주 : *p<.05, **p<.001, ***p<.0001 임.

<표3-1>의 인구 사회학적인 모델은 소득을 포함한 인구 사회학적인 변수들이 포함된 상황에서 후원 노력의 변화를 예측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변수들은 1차항의 소득과 2차항의 소득 외에도 후원자의 연령, 직업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종교 변수도 주목할 만한 수준의 예측 요인일 수 있으나 성, 결혼 상태, 가족 규모, 교육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인구 사회학적인 모델에서 표준화 회귀 계수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후원 노력 변화의 예측에 있어 가장 강한 효과를 보이는 것은 1차항의 소득 변수이고, 그 다음이 2차항의 소득 변수, 그 다음이 연령 변수, 그 다음이 직업 변수 그리고 그 다음이 종교임을 나타내고 있다. 위에서 논하였던 소득 변수 이외에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인구 사회학적인 변수들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연령은 후원 노력에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즉 후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연령이 한 단위 변화할 때 후원 노력의 정도도 log 0.03262 즉 3.3%만큼 정적으로 변화함을 나타낸다. 종교에서는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중 기독교를 종교로 갖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log 0.303 즉 35.4% 더 높은 수준의 후원 노력을 나타낼 수 있음을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에서는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중 전문직을 갖고 있거나 공무원 및 회사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주부나 자영업자나 기타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log 0.343 즉 40.1% 더 낮은 수준의 후원 노력을 나타냄을 예측하고 있다. 한편 이 인구 사회학적인 모델의 조정된 결정 계수 즉 모델의 설명력은 21.9%로 소득만의 모델에 비해 설명력이 11.4% 정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활용한 모델의 결과가 나타내는 바를 정리하면, 여러 가지 인구 사회학적인 변수들을 통제시킨 상황에서도 비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소득 변수가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후원 노력의 정도를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이고 아울러서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연령 또한 후원 노력의 정도를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중요하게 기능하는 변수임을 나타낸다.

<표 3-2> 후원행동관련 변수 모델

예 측 변 수	후원행동 관련 변수 model		
	B	β	SE
후원참여동기	.212	.074	.225
후원지속동기	-.369	-.141	.210#
후원금 활용에 대한 신뢰여부	-.396	-.110	.292
기관에 대한 만족도	.332	.099	.274
후원기간	1.309E-03	.052	.002
후원활동 참여에서의 적극성	.379	.140	.216#
(Constant)	-1.4E-02		.537
Adjusted R ²	.040#		
F	2.093		

종속변수 : log 후원 노력

주 : # p<0.1 임.

<표3-2>는 후원 행동 관련 변수들에 의한 후원 노력 수준 예측에 대한 회귀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 표는 위의 후원 행동 관련 변수들 중에서 어느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후원 노력의 변화를 예측하고 설명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지속 이

유와 후원 활동 참여의 적극성(권유) 변수만이 통계적인 유의미성에 근접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3-2>는 후원 활동을 타인에게 권유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후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내적인 지속 이유를 갖는 사람들보다 외적인 지속 이유를 갖는 사람들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후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들에 의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한편 위 모델의 조정된 결정 계수 즉 모델의 설명력도 4% 정도로서 인구사회학적인 모델에 비해 낮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3-3> 후원노력을 예측하는 변수 분석 결과표

예측변수		Full-model coefficient			Reduced-model coefficient		
		B	β	SE	B	β	SE
소득관	표준화된 개인소득	-.556	-.513	.133***	-.579	-.534	.106***
연변수	표준화된 개인소득 ⁴	.359	.426	.090***	.383	.454	.076***
인구사 회학적 변수	성별	1.359E-02	.006	.199			
	종교	.213	.095	.179			
	결혼상태	-.118	-.047	.250			
	교육수준	.280	.124	.187			
	연령	3.533E-02	.340	.010**	2.771E-02	.267	.008**
	직업	-.310	-.132	.191			
	가족수	1.458E-02	.019	.061			
후원활 동관련 변수	후원참여동기	.175	.060	.221			
	후원지속동기	-.244	-.092	.213	-.404	-.152	.195*
	후원금활용에 대한 신뢰도	-.316	-.081	.308			
	기관에 대한 만족도	.313	.092	.263			
	후원기간	-2.9E-03	-.113	.002			
	후원활동참여에의 적극성	.463	.166	.215*	.454	.163	.203*
(Constant)		-1.739		.719*	-1.290		.414**
Adjusted R ²		.241			.236		
F		4.155***			10.185***		

종속변수: log 후원 노력

주 : * p<.05, **p<.001, ***p<.0001 임.

<표3-3>는 소득 등의 인구 사회학적인 변수들과 후원 행동 관련 변수들을 모두 포함한 후 후원 노력의 정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어느 변수들의 예측력이 유의미한지를 정리하여 보여준다.

그리고 이 표는 어떤 변수들을 포함하는 모델이 가장 효율적으로 후원 노력의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여 나타내고 있다. 먼저 인구 사회학적인 변수들과 후원 행동 관련 변수들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Full Model에 의한 회귀 분석 결과를 보면, 위의 변수들 중에서 후원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은 1차항의 소득과 2차항의 소득, 그리고 연령 및 후원 활동 참여에의 적극성(권유)임을 위의 모델은 보여주고 있다. 표준화 회귀 계수(beta)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후원 노력 변화의 예측에 있어 예측력의 순서는 1차항의 소득 변수, 2차항의 소득 변수, 연령 변수, 후원 활동 참여에의 적극성(권유)의 순임을 보여준다.

한편 Full Model에서 회귀 변수가 0과 큰 차이가 없는 예측 변수들을 하나씩 제외시킨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 변수들만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구성된 Reduced Model은 Full Model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변수들 이외에 후원 활동 지속 이유 변수가 포함됨을 나타낸다.

이 Reduced Model의 조정된 결정 계수 즉 모델의 설명력은 Full Model의 설명력 24.1%에 비해 별로 떨어지지 않는 23.6%임을 나타내어 이 Reduced Model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음을 보여준다. 한편 Reduced Model의 표준화 회귀 계수를 기초로 후원 노력의 정도 변화에 대한 예측력을 정리하면, 이 모델에서도 어떤 다른 변수들보다도 소득 변수가 특히 1차항의 소득 변수가 가장 강력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이 2차항의 소득 변수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연령 변수, 후원 활동 참여의 적극성 변수(권유), 그리고 후원 활동 지속 이유 변수의 순으로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이 Reduced Model은 후원 노력의 정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소득과 연령 같은 인구 사회학적인 변수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후원 활동 참여의 적극성(권유)과 후원 활동 지속 이유와 같은 후원 행동 관련 변수들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후원 노력의 변화를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인구 사회학적인 변수들과 더불어 후원 행동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도 상당히 중요하게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V. 결론과 함의

지금까지 본 연구는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 사회학적인 특징과 후원 행동 관련 특징 그리고 후원 노력의 정도와 이를 예측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 사회학적인 특징들을 정리하면, 직업에서는 공무원과 회사원 등의 안정된 직업을

갖는 사람들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고, 교육 수준에서는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종교에서는 기독교의 비중, 특히 개신교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고, 결혼 상태에서는 기혼자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한편 연령에서는 30대와 40대의 중년층이 중심이고, 가족 규모에서도 4인 가족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소득에서는 가구 소득 2,700만원을 중심으로 다소 정적으로 편포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그 특징적 내용과 관계들을 보다 정확히 설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본 연구 결과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집단의 많은 부분이 고등 교육, 안정된 직업, 기혼, 기독교인, 경제적으로는 중층, 30대와 40대의 연령 대라는 특징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이러한 인구 사회학적인 특징들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민간 사회 복지 자원을 제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구 집단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 동안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규명에 대한 연구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후원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민간복지 자원 개발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후원 활동 현상에 대한 이해와 후원자 개발 및 후원자 관리에 대한 전략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정밀하고 지속적으로 이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동 특징들을 정리하면, 시작 동기에서는 "joy of giving"과 유사한 내적인 동기를 갖는 사람들의 비중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 동기에서도 개인적 보람이라는 내적 동기의 비중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후원금 활용 신뢰도 및 후원 기관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후원 활동에의 참여의 적극성 모두에서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한편 후원 지속 기간에서는 중간값이 3년이 넘고 평균은 4년이 넘고 있음이 즉 지속 기간은 정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이, 그리고 후원금 규모의 중간값도 개인과 가족 모두에서 월 2만원 중심이고 이 변수 역시 정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이 관찰되었다.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후원 관련 행동들에 관해 보다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나, 본 연구 결과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의 행동적 특징들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후원 인구 집단의 많은 부분은 내적인 참여 동기 및 지속 동기, 상당히 높은 수준의 후원 활동에 대한 신뢰도, 만족도 및 참여 적극성, 그리고 상당한 지속 기간이라는 특징들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이같은 후원 행동 관련 특징들에 대한 이해 역시 민간 사회복지 자원의 개발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즉 민간 사

회복지자원의 개발과 확대 측면에서 후원관련 행동 특징들에 대한 이해는 후원자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관리 프로그램의 내용 강화와 개발에 실제적으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후원 지속 동기와 신뢰성, 만족도 및 참여 적극성의 강화 노력은 민간 복지 자원의 개발과 확대를 위해 매우 필요하고 그러한 노력이 전개되었을 때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후원 행동 관련 특징들에 대한 연구 역시 그동안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어져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는 후원 행위 자체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이해에 기초하여 지향해야 할 것을 파악해 내고 그것을 위한 노력을 확대시키는 데에도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후원 노력의 수준과 이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개인 후원 노력 비율의 중간값은 약 1.2%정도이고 이 후원 노력의 분포는 정적으로 편포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러한 후원 노력은 소득에 의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데 그 형태가 미국에서의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U의 모습을 갖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U의 형태를 지니는 이유에 있어 소득에 따라 후원 노력이 최소점까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paying my dues"의 설명이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최소점 이후 소득과 함께 후원 노력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는 것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 의한 검증과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소득을 포함하는 인구 사회학적인 변수들과 후원 행동 관련 변수들을 모두 포괄하는 모델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 변수들만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구성한 축소 모델을 통한 분석 결과는 소득과 연령 그리고 후원 행동 관련 변수인 후원 지속 동기와 후원 활동 참여에의 적극성이 후원 노력의 수준 변화를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가장 효과적임을 보여 주었다. 후원 노력에 대해 영향력을 갖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갖는 의미는 먼저 후원 노력 현상에 대한 설명력 확대이고 다음으로 사람들의 후원 노력의 수준을 늘리기 위한 노력의 진행 방향 모색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본다. 사실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후원 노력의 수준을 증대시키는 것은 후원 활동에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만큼이나 민간 사회복지 자원의 개발을 위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후원 노력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이해의 부재 속에서 우리는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해서 제한된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후원 활동과 관련된 이해, 특히 후원 노력 현상과 관련된 이해의 수준을 제고하고 후속 연구들의 방향을 이끄는 데 있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간 복지 자원의 개발과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측면에서는 제한점을 가지고 본다. 참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여러 연구 과제들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져 보다 구체적으로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후원 행동에 대해서 이론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향후 후원 활동과 관련하여 누가, 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광범위한 자료를 축적하고 동시에 좀더 대상을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민간 복지 자원의 개발과 확대를 위해서 좀더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김 경. 1996. "지역사회복지관의 모금활동에 관한 연구-사후관리활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송실대학교.
- 김두섭. 1993. 회귀분석. 서울: 법문사.
- 박정미. 1995. "사회복지기관의 후원자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박정임. 1996. "사회복지관의 후원자개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 대학교.
- 조소라. 1995. "사회복지기관 후원자들의 후원행위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최진균. 1990. "아동복지시설의 결연 사업에 있어서 후원자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송실대학교.

2. 외국문헌

- Clotfelter, Charles T. 1980. "Tax Incentives and Charitable Giving: Evidence from a Panel of Taxpaye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3.
- Clotfelter, Charles T. and Eugene Steuerle. 1981. "Charitable Contributions." In *How Taxes Affect Economic Behavior*. edited by Henry Aaron and Joseph Pechman.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 Feldstein, Martin and Charles Clotfelter. 1976. "Tax Incentives and Charitable Contribution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5.
- Gallup Organization. 1979. *Survey of the Public's Recollection of 1978 Charitable Donations*. Princeton, N. J.: Gallup Organization.
- Gallup Organization. 1981. *Americans Volunteer: 1981*. Princeton, N.J.: Gallup Organization.
- Hamilton, Lawrence. 1990. *Modern Data Analysis*. Pacific Grove, Cal.: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Hamilton, Lawrence. 1992. *Regression with Graphics*. Belmont, Cal.: Duxbury Press.
- Jencks, Christopher. 1987. "Who Gives to What?" In *The Nonprofit Sector: A Research Handbook*.

edited by Walter W. Powell. New He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Morgan, James N., Richard F. Dye, and Judith H. Hybels. 1977. "Results from Two National Surveys of Philanthropic Activity." In *Research Papers Sponsored by the Commission on Private Philanthropy and Public Needs*. Vol. 1. Washington, D. C.: Department of Treasury.

Mount, Joan. 1996. "Why Donors Give." *Nonprofit Management & Leadership*. Vol. 7 (1).

Sewell Jr, Marshall. 1988. "Retired Power: Putting It To Work." *Fund Raising Management*. December.

"Trends in Private Sources of Support for the Independent Sector." 1993. *Nonprofit Almanac 1982-1993*.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New Independent Sector Study Packed With Surprises." 1988. *Fund Raising Management*. November.

"Giving, Volunteering on the Rise." 1996. *Fund Raising Management*. December.

Abstract

**A Study of Predicting the Degree of Donors' Philanthropic Effort
in Nonprofit Social Welfare Arena**

Kang, Chul Hee

The primary objectives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1) demographic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donors for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in Korea and (2) factors that predicts the degrees of donors' philanthropic effort measured by the fraction of personal income given to these organizations. This study uses the data based on the responses of 191 participants among 500 donors selected randomly from the donor population of 5 major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In the demographic aspect, this study showed that donors have higher frequencies in college education, Christianity, married status, age of 30s & 40s, and middle class. In the behavioral aspect, this study showed that donors have higher frequencies in inner motivation for philanthropic participation ("joy of giving"), satisfaction about the activities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trust toward funds administration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active participation ("solicitation to others") about donation. This study also showed that donor's duration is distributed around 3 years (median) and donors' donation amount is distributed around 20,000 Won (median). This study found that the median value of donors' philanthropic effort is 1.2 percent and the distribution of philanthropic effort by income has the U shape. Finally, using polynomial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the first power and second power of donor's income, age, continuation motivation of donation, and degree of active participation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predicting the degree of donors' philanthropic effor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xpanding knowledge about donors' characteristics and provide a practical implication for financial resource mobilization strategies in nonprofit nongovernmental sector.

Tel. 02-360-3449

Fax. 02-360-2858

E-mail : chulhee@mm.ewha.ac.kr